



## 가정예배

번성하는 우리가정

2022년 9월 3주

##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양

'내가 주인 삼은'

<https://youtu.be/eeQQzO4ZDP4>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찬양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말씀

###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4:11)

어떤 통계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걱정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걱정은 대부분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매달리고 근심할까요? 많은 경우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탐심은 이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더 가치 있게 추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이상 숭배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을 강한 열망으로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항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10계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창조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하고 개발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의 것이 점점 나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10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재능, 물질, 시간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 나눔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또한 이 마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제목과 더불어 가족들과 나누어 봅시다.

### (다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언가를 향한 탐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 (부모가 읽는 기도) - 부모님 중 한 분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가정을 위한 기도